금은방에 금 팔면 범죄 용의자?

관련법 폐지 됐지만 경찰 인권 침해 여전

계속되는 경제난에 생계에 도움을 받기위해 금을 파는 서민층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경찰관들이 각 금은방에서 작성한 매입장부〈사진〉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특진 등 실적 쌓기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전남 각 경찰서 등에 따르면 형사과 직원들은 각 금은방에서 작성한 매입장부를 통해 수시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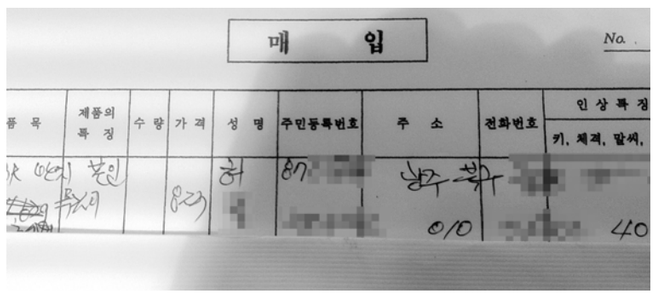
매입장부 양식은 과거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나눠준 것인데, 금은방 주인들은 장부에 매도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인상착의 등을 기재한 뒤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 자료를 넘겨주고 있다.

매입장부 기재에 대한 강제규정은 1993년 12월 27일 고물영업법 폐지에 따라 사라졌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죄 없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관들은 입수한 매입장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 등에 옮겨 저장해놓고 실적 쌓기 도구로 쓰고 있다.

매입장부에 적힌 고객들을 상대로 귀금속 판매 횟수·나이 등을 고려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수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결국, 고객이 금은방 문턱만 넘었다면 개인정보가 수집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용의선상에 오르내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베테랑 형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금은방 고객의 개인정보를 경찰 특진의 도구 정도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십 년 간 수집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은방 주인들은 수시로 광주·전남 각 경찰서에서 매입장부를 가지러 오는데, 장물취득 혐의에 대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금은방 매입장부를 통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보 수집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폐지된 법률을 토대로 정보수집에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사기사건 피의자에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광산·동부서 경찰 4명 검거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혐의를 눈감아준 광주지역 경찰 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18일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모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역시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광주 광산경찰서 송모 경사와 동부경찰서 박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산경찰서 임모 경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도록 알선한 조모씨 등 브로커 2명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경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탁모씨의 사기사건을 수차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주는 대가로 성접대 등 7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경찰들도 탁씨에게서 성접대를 포함해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전 경장이 소속된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지청은 사기 사건으로 구속한 탁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경장의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가 전 경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 뒤인 29일 출두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 경장을 긴급체포해 다음날인 29일 탁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광산경찰서가 전씨가 받은 향응 액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을 상대로 추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참 〈8419〉 김종두

보성 장례식장 조문객 집단 설사… 역학 조사

보성군보건소는 최근 장례식장 조문객 22명이 집단으로 설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보성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지만 15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소는 이들의 가검물을 수거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18일 인화학교 학부모들이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원 40여명과 함께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의 운영법인인 '우석의 자진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jeans@kwangju.co.kr

"강제낙태·정관수술 피해 배상하라"

한센병 회복자 207명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한센병을 앓았던 200여명이 '강제낙태'와 '단종'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등에 따르면 한센병 회복자 207명은 '과거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낙태와 정관수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데도 환자들은 강제로 낙태와 단종을 당하는 등 차별을 겪어 왔다"며 "한센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국가는 낙태 피해자 17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을, 단종 피해자 190명에게 각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교비횡령 성화대학 학장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학 이모(55) 학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학장은 성화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 한 해 동안 혼자 또는 이 대학 전 사무국장 이모(63)씨와 함께 성화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화학교 학생 암매장 의혹 조사

광주경찰

인화학교의 전신인 옛 전남농아학교에서 40여년 전 학생 2명이 숨지고, 암매장됐다는 주장〈광주일보 10월18일 6면〉과 관련, 경찰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960년대 전남농아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김영일(71)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광주시청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교사로 근무했던 지난 1964년 6~7세로 추정되는 남녀 학생 2명이 교감 등에게 맞거나 굶어 숨졌다"며 "숨진 학생들은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 기슭에 암매장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씨는 "당시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며 당시 인화학교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다룬 광주일보의 전신인 구 전남매일신문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어린이들이 암매장됐다는 장소에 이미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관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설령 김씨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40여년이 흐른 이날 현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데다가 경찰이 시신이 아닌 또 다른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현재 모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중인 인화학교 재단 이사장의 셋째 아들이 지난 1975년 인화학교에 다니던 청각장애 여학생 2명의 옷을 벗긴 뒤 누드화를 그렸다는 인화학교 졸업생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들, 고참한테 폭행당했다"

휴가중 자살 이병 가족 주장… 軍, 진상 파악

육군 이병이 휴가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해당 이병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군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18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김모(20) 이병이 최근 자살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원인"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이병은 지난 16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중학교 숙직실 앞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이병의 유족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 '고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김 이병과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체불임금 달라" 선주 폭행후 中 도주

쌍나팔

○…해남경찰은 18일 선주를 폭행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상해)로 조선족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5월 11일 해남군 화원면 한 선착장에서 임금 문제로 선주 B(56)씨와 다툰 후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50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범행 후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 16일 재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화석시대고기뷔페충장점
황금동 학생회관뒤 갤러리존후문
고기 뷔페 전문
☎(062)232-9191

쟌비어
용봉동 현대3차@와 금호@사이
호프 전문점
☎(062)525-0309

해피니스 요양병원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편 삼거리
내과,외과,신경외과,한방진료과,호스피스케어
장기요양및보호,장기단기 입원 필요하신분
대표 박종수
☎(062)251-8400~1

(주)해다움
신안동 역전파출소 맞은편 영지빌딩5층
농.수.축산물 식당,외식업체,병원,교회등
납품업체전문 광주전지역
배달해드립니다.!
☎(062)528-9797

조선의땅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광주은행뒷편
간장게장,백반,불백,생고기,갈비살,돼지갈비
생삼겹,오리고기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송금애
☎062-262-3326

부모사랑상조서광주지점
농성동 서구청맞은편 광주지도3층
장례의 모든 것. 직원및 회원수시모집
가족처럼 성심성의껏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62-364-1777

월출도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번지 동부교육청 근처
병점,사주,궁합,부적
'영으로 봐 드립니다'
대표 허길배
☎(062)527-2008

유한회사TSC
중흥동 658-21번지 2층
법원경매 전문법인회사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겠습니다(무료상담)
대표이사 김찬승
☎010-8033-0114

1599-4242
광주전지역 3회 이용시 1회무료
전직원 보험가입,사고,카메라100%사후처리
대리운전기사 수시모집,씽씽대리운전
☎010-9990-0252

한우전서
양산동 신흥택시옆 현대오일뱅크뒷편
점심특선,한우주물럭,한우생고기,
생고기비빔밥, 갈비살,꽃등심,차돌베기
단체예약손님 각종모임 완비
☎(062)571-9294

미소장식
남구 방림동 설월여고부근
도배, 장판, 데코타일
견적무료
☎010-3644-0490

SiverHolic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실버커플링,이어링,목걸이,패션쥬얼리
14k/18k 주문제작
☎062-222-0144

경희수한방병원
학동 전대병원응급실 건너
한양방 협진병원,교통사고
의료보험지정병원, 각종 보험 상담
원장 최수광
☎062-236-1058

옛날집
두암동 무등파크2차 후문입구 맞은편
점심특선,계장빽반,오리탕,오리로스,오리백숙
오리훈제,오리주물럭,생삼겹살,코다리찜
☎062-251-8589

▶하리가방
월계동 남양apt정문 맞은편
명품가방,핸드백,지갑,숙녀구두,벨트
의류,각종악세사리 취급 전문점
☎062-972-8999

삼성공인중개사
월계동 남양apt정문앞
apt,빌딩,주택,상가,원룸 매매및 임대알선
각종부동산컨설팅 상담전문
☎062-971-3031

명품눈썹&네일
월계동 남양apt정문 맞은편 파리바게트옆
남자눈썹,자연눈썹,아이라인,입술,네일
수강생 수시모집
☎062-973-5566

종국이 두 마리치킨
용봉동 33-44 전대후문에서 혜원주유소옆
하림 전메뉴 국내산 두 마리 16,000원
학교,학원,교회,유치원 단체주문환영
☎062-264-9992

▶백조마을
소태동 617-3 진아하이빌@옆
연회석 완비, 신장개업
대표 김희숙
☎062-234-3242

내고향바지락칼국수
쌍암동 롯데마트옆 CGV사거리
보리밥+칼국수5,000원
팥죽6,000원/ 왕만두5,000원
☎(062)972-1315

메기대마왕
쌍암동 CGV건너편
민물요리 전문점
대표 손주식
☎(062)971-8287

수텔레콤
두암동 농협3거리 광주은행365코너옆
SK,T-world,각사 스마트폰
효도폰 핸드폰신규 가입 , 기기변경
번호이동,인터넷가입 각종업무대행
☎(062)268-1664

상쾌한 이비인후과
진월동 구)해태마트앞 아이클리닉3층
귀.중이염클리닉,코축농증,알레르기성비염
코막힘,목클리닉,소아클리닉 진료전문
☎(062)651-0555

다사랑공인중개사
동림동 삼익@상강내
apt,빌딩,주택,상가,원룸,
토지 매매및 임대알선
각종부동산 컨설팅 상담전문
☎062-373-9287

네온사이드미러광주·전남총판
신안동 사거리 삼성자동차부품상사옆
운전중 사각지대해결,넓어진시야 차선변경
주차사이드 국토행양부지정 교통신기술1호
☎062-521-7452

유 촌
북구 중흥동 남양건설빌딩옆
생선요리전문
점심특선 오전 11시30분~오후2시까지
생태탕, 조기매운탕 5,000원
☎062-224-1541